

우호도시 몽골 협스걸에

사랑의 PC 30대 기증해

대전 서구는 국제우호도시인 몽골 협스걸에 '사랑의 PC'를 기증하며 몽골 현지와 온라인(ZOOM)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증은 서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불용 PC를 정비해 국제우호도시 교육지원에 활용하는 '사랑의 PC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협스걸 폴리텍대학에 기증된다.

1973년 설립된 협스걸 폴리텍대학은 재학생 517명 규모의 직업교육기관으로, 지금까지 1만 3천 명이 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해 왔다. 서구가 기증한 PC는 대학의 정보화 교육 및 실습 환경 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기증이 협스걸 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제우호도시와 실질적 협력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구청에서 '2025년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상은 복수동 초록마을3단지(VG)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가수원동 은아1단지아파트 △관저동 관저어반힐스가 선정됐다.

이채봉 기자

괴산 ‘효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1천 명 시대 연다

괴산군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사상 최초로 1천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촌 일손 부족이 상시화하는 가운데, 괴산군의 계절근로자 운영 모델이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은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농가의 호응이 높은 숙련 인력 350여 명의 재입국과 라오스에서도 인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16일까지 올해 배정받은 684명이 성공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전원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군은 이제는 인건비 절감을 넘어 숙련도 높은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춰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684명을 배정받아 운영했으며, 이는 도내 최고 인원이다. 이 중 662명은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 22명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 인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555명보다 129명(23.2%) 늘었으며, 재방문 계절근로자가 171명에 달했다.

근로자들은 약 8개월간 관내 농가에 배치돼 영농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근로자들은 현재 순차적으로 출국 중이며, 지난 8일 기준 59명이 출국을 완료했다. 오는 16일까지 208명이 추가로 출국하면 전원 출국이 완료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유공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현진 기자

충남도 인공지능(AI) 대전환 힘 싣는다

충남AI특별위원회 회의 개최…1.5조 규모의 국가사업 등 추진 방안 논의



충청남도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에 힘을 싣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충남도는 도내 전역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전환 추진을 위한 '충남AI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호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충남AI특별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선출, 운영계획 보고, 분과별 보고, 자문·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AI특별위원회는 지난달 김태흠 지사의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선언과 함께 출범한 것으로, 충남 인공

지능 전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총괄 △제조 △농축산·바이오 △지역·공공 총 4개 분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수립 방향을 폭넓게 검토했다.

특히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업 분야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8개 사업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전략 및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 과정 중 증액된 '충남권 인공지능

대전환 기획 사업(10억 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철강, 도시서비스, 공공행정 등 산업·생활·행정 전 영역으로 인공지능 전환을 확산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세부 과제 발굴과 추진 체계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논의 내용을 반영해 내년 초까지 △인공지능 대전환 기본 전략 △혁신생태계 조성 △제조공정 인공지능 전환 △스마트 농축수산업 인공지능 전환 △융복합 바이오 인공지능 전환 △인공지능 지역·도시서비스 △인공지능 공공 혁신 등 7대 분야로 구성된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형 단국대 교수를 중심으로 내년 10월까지 전략 수립과 후속 실행 과정 전반에 자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천안 신부 문화공원에서 연 '제10회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도민과 성탄절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현진 기자

세종 ‘세담터’ 시민중심으로 개편

누리집 명칭변경·메인화면 및 메뉴 구성 이용자 중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세종시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의 명칭을 '세담터(세종을 담은 데이터)'로 변경하고 메인화면과 메뉴 구성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세담터'는 2022년 12월 시민 누구나 세종시 데이터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누리집이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이용자의 가독성·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경제 등 자주 찾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제공 중인 공공·민간데이터는 시민 생활에 밀접하고 활용도가 높은 문화관광, 보건복지, 산업 등 총 412종이다. 세종시는 메인화면에 세종을 대표하는 장소인 이응다리를 디자인 요소로 구현해 시의 정체성을 반영했다. 관련 메뉴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

특히 세종시 유동 인구, 소비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세종' 메뉴를

새로 만들고 앞단에 배치해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관심사를 반영한 인기검색어, 추천데이터, 최신데이터 기능을 추가해 데이터 검색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했다. 시는 누리집 개편으로 시민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 양질의 생활데이터 제공,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문현 담당관은 "수요 높은 데이터를 지속 발굴·개방해 시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세담터'에서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가 오는 27일까지 연동 문화발전소에서 제1기 입주예술인 결과보고전 '처음'을 선보인다.

전시 공통 주제는 '한글'로 작가마다 각각의 작업 언어로 해석해 회화, 설치, 영상 등 방식으로 확장했다.

이채봉 기자

‘연 in 대전’118쌍 커플 탄생했다!



대전시의 '2025년 청년만남지원사업(연 in 대전)'이 마무리 됐다.

대전시는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결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결산 행사는 올해 '연 in 대전'에 참여했던 청년 80명(남 40·여 40)을 초청해 진행되었으며, 웨딩홀 공간을 활용한 결혼식 콘셉트로 청년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전시는 ▲3월 대전엑스포아쿠아리움에서 진행한 1회 차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6월 대전시립미술관(관 고하) ▲9월 치유의 숲 ▲10월 대청호 ▲11월 공주 마곡사 일대 등에서 총 19회 차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74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해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 누적 118쌍의 커플이 탄생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만남과 교류 활

성화에 의미 있는 도움을 주고 있다. 대전시는 청년 교류 활성화와 결혼장려금 지원 등 결혼친화정책을 강화한 결과, 혼인율에서도 뚜렷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25년 8월 인구동향 보고'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전시의 누적 혼인 건수는 5,4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9%가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내년에는 청년 의견을 더 폭넓게 반영해 더욱 매력적인 지역 청년 교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6년에도 관내 청년들의 교류 환경 강화를 위해 회차별 특성에 맞춘 기획을 확대하고 민간 커뮤니티와 협력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채봉 기자

시통널
시팔널

반도체 중심도시

오산